더욱 큰 우리의 기세

최 영근 그림

화살

1959년 11월상반호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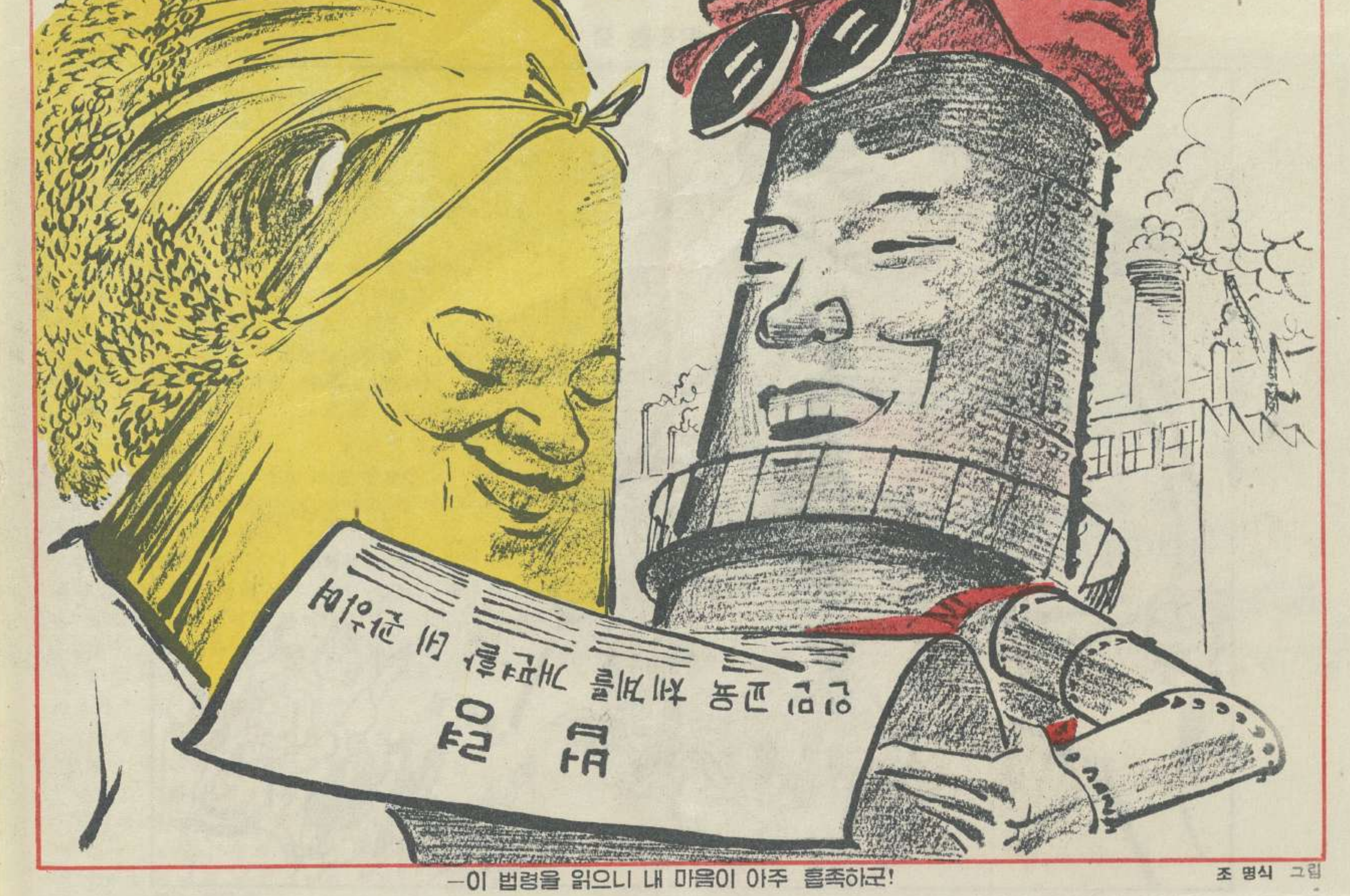
막을 수 없는 우리의 념원

조 명식 그림

유일한 방도

홍 종호 그림

회 소 식



—이 법령을 읽으니 내 마음이 아주 흡족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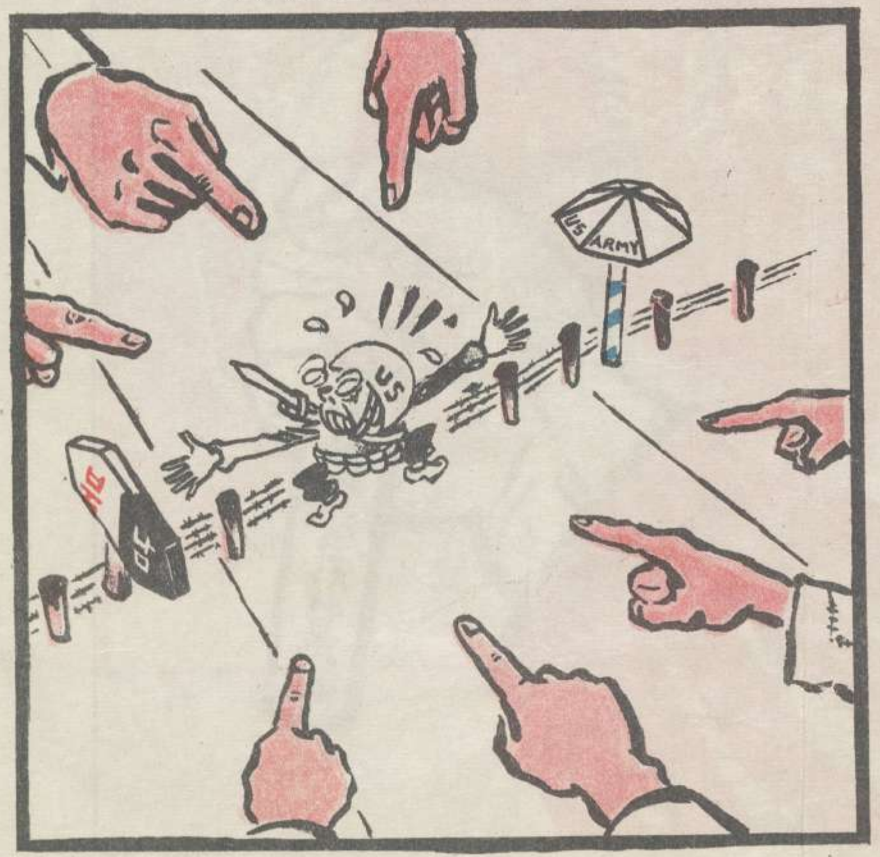
조 명식 그림

송 용남 그림

조국의 따뜻한 품

송 용남 그림

인공적인 장벽은 제거 되여야 한다



최 영근 그림

미군 나가라!

평 양 리 만성 그림

전쟁 미치광이

신 흥순

평화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놀랜 리 승만 도배들은 최근에 와서 평화 소리만 하여도 잡아 가고 평화란 두 자가 붙은 간판이란 간판까지도 모조리 다 떼여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하여 경관들이 돌아치며 간판을 떼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

《이봐! 당장 이 간판을 떼란 말야!》

《아니 허가장까지 가지고 장사를 해 먹는데 간판은 왜 떼란 말요?》

《이따우 평화 상점이니 평화려관, 평화 양복점 할 것 없이 평화'자가 들어 있는 간판은 모조리 다 없애기루 됐어!》

《아니 그럼 평화'자 대신에 전쟁 상점이니 북진 려관이니 원자탄 양복점, 딸라 전당포라구 지어야 한단 말이요?》

《리 승만 대통령의 명령이다! 네 손으로 안 떼면 내 손으로 떼겠다.》

순경은 간판을 떼여 내 던진다.

이렇게 간판을 떼려 돌아 치는데 마침 어떤 집에서 《에그, 평화나 빨리 왔으면 좋으련만》하는 로인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야, 이것 봐라!》

순경은 냉큼 방문을 열어 제낀다.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엉?》

《전 지금 아무 소리도 안했습니다.》

《안한게 뭐야? 금시 평화가 왔으면 어쩌구 저쩌구 했지?》

《네에, 그건 국군에 나간 저의 아들놈이나 왔으면 한 소립니다.》

《옳지, 인젠 북진을 그만 두구 얼른 평화가 돼서 군대가 모두 제대 됐으면 하는 수작이로구나!》

《우리 아들놈 이름이 평화랍니다.》

《뭐? 아들놈 이름까지두 평화라구 지었어? 가만 있자, 이건 간판처럼 뚝 떼지도 못허구 어떠컨다? 인제 보니 이놈의 집이 아주 빨갱이 집이로구나! 아들놈 이름까지두 평화라구 지었을젠?》

《우리 아들애 이름은 그런 평화가 아니랍니다.》

《아니가 뭐야? 평화면 평화지 평화 아닌 평화가 어딨어?》

《우리 애는 고르화(和)'자 평화가 아니구 빛날화(華)'자 평화랍니다.》

《빛날화'자?》

《네, 그게 돌림자가 돼서요》

《어쨌든 평화는 안된단 말이야! 그 자식 이름을 당장 곤쳐!》

《뭐라구 고쳐요?》

《그 자식 이름을 말이지? 에 또 전쟁으루 고치란 말이다, 전쟁으루!》

계절을 모르는 《놀음'군》들

송 용남 그림

리 승만의 정치 도구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전대 미문의 탄압과 학살과 테로를 감행하고 있다. 작년 1년 동안에 만도 리 승만 도당은 24만명을 넘는 무고한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하였다

안창수 그림

건져 낼 맥이 없다

리 용남 그림

파괴하는《건설》

허 능택 그림

한 미국 병사의 편지

로 철

존경하는 아버지

급히 300 딸라를 보내 주어야겠습니다. 아버지는《이놈이 또 도박에서 졌나 보다》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박이였지요

바로 한달 전 일이였습니다. 저는 우리 분대에 있는 존 웰렌스와《왕후 메리》란 트럼프 놀이를 하게 되였습니다. 웰렌스라는 놈은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전근되여 온 놈인 데 상판은 점잖게 생겼으나 알고 보니 지독한 놈이더군요. 라오스에 있을 때 처녀애만 골라서 13 명을 강간하고 몽땅 죽인 일이 있는 데 그것도 그저 심심풀이로 그랬다고 자랑하더군요.

처음《왕후 메리》는 저에게 행복의 웃음을 웃는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놀이는 저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호주머니의 돈을 몽땅 쓸어 넣고도 120 딸라나 모자라게 되였습니다.

—일없어, 헨리, 래일 아침까지 물면 돼,아니 서울 장안에 오죽이나 한국놈들이 많다고…

저는 그날 밤으로 택시를 타고 돈을 구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였습니다. 바로 그 한국놈 자동차 운전수가 다행이도 제 곤경을 풀어 주더군요. 그 대신에 그놈이 저의 손에 목숨을 들여 놓게 되였지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도 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놈들이야 기껏해서 우리 아메리카 사람들의 향락을 위한 희생물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자그마한 사건이 뜻밖에도 요 한달 동안 씨끄러운 일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한국 백성들이 시궁창에 쓸어 박았던 그 운전수놈의 시체를 찾아서 받들어 들고는 시청 앞에 모여 들어서《범인을 처단하라!》느니《미군 나가라!》느니 아우성 소리를 치게 되였는 데 우리 미 제 8군에서도 그냥 잠자코 지낼 수 없게 되였단 말입니다. 결국 군사 재판이 시작되였습니다. 론산에서 진행된 군사 재판은 저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검사는 살인죄로 저를 기소하면서 600 딸라의 벌금을 구형하더군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죄로 될게 있는가? 바로 검사 선생 당신도 얼마 전에 한국놈 보석상점을 습격해서 사람을 둘씩이나 죽이고 돈도 많이 벌지 않았는가? 그때도 당신은 아무러한 재판도 받지 않았는 데 그에 비하면 나야 그것이 무슨 범죄란 말인가? 그뿐인가? 재판장 선생 당신도 역시 바로 어제…》하고 저는 변론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흥정판처럼 되여 버렸지요. 600 딸라의 벌금이 500 딸라가 되고 다시 내려가서 결국 300 딸라 벌금형, 만일 즉시 물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간의 외출 금지 판결이 내렸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저의 이 억울한 루명을 아시고는《아니, 공산주의 위협을 막으려 간 내 아들, 애국자에게 벌금을 물리다니》하고 못내 분개하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려 주지 마십시요. 어머니는 저의 소식만 아신다면 당장 대통령에게 찾아 가서 아들을 집에 돌려 보내라고 히스테리를 부릴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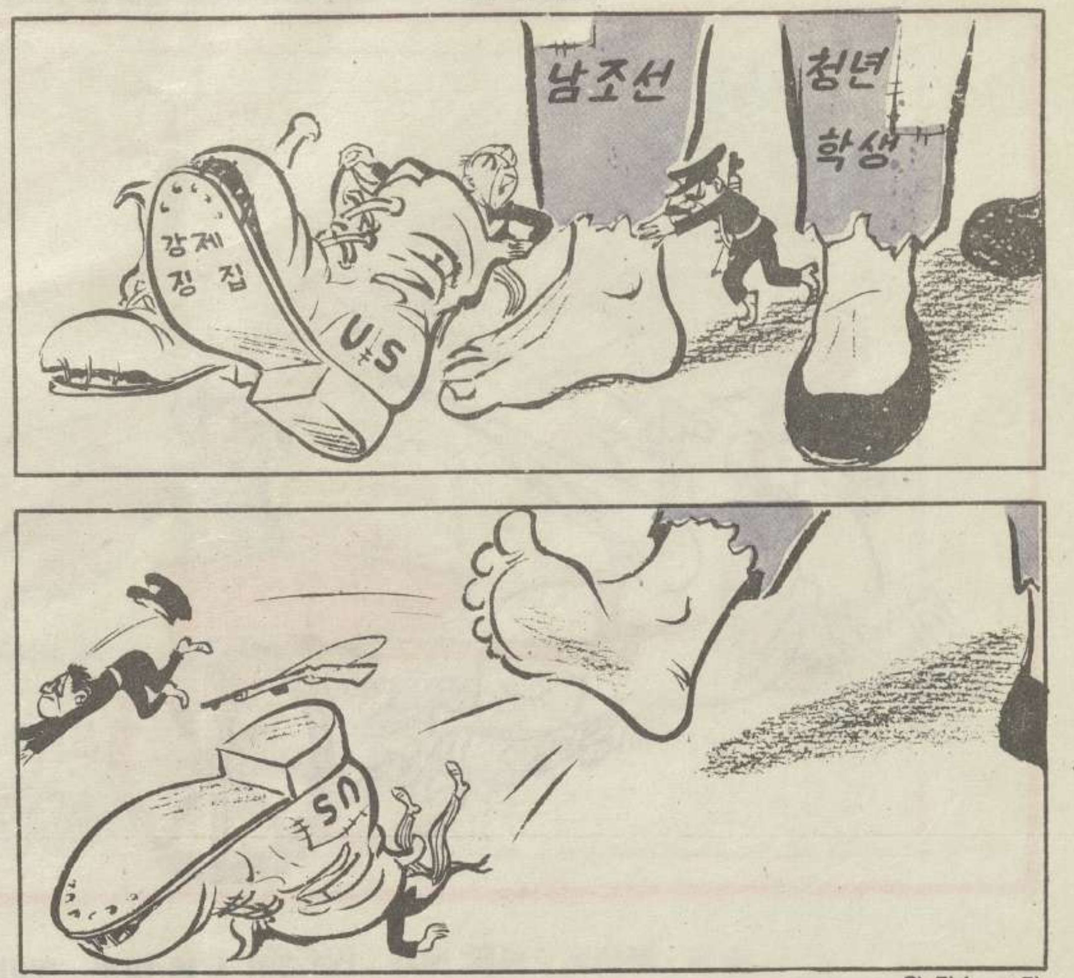
그러나 어쩐지 저는 이 한국이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우리 미국 사람들의 자유라는 개성 발전에 적당하니까요.

인차 300 딸라를 보내 주십시요. 방안에 갇혀 있으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버지에게 기어코 맹세합니다만 제가 자유롭게 나다니는 몸이라면 일주일 내에 그만한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험 많은 존 웰렌스와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을 학수 고대하면서…아들 헨리 올림》

서울에서

배격한다!



원 광수 그림

미국 개와 괴뢰 장교

최 철수

한 잎의 락엽으로 천하의 가을을 알 수 있다는 격으로 한 가지 실례로도《하느님의 아들》로 또한 소위《한국의 원조자》로《독립의 옹호자》로 자처하는 교활하고 흉악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승냥이와 같은 정체를 폭로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개가 방에서 쉬고 사람이 비'바람치는 밖에서 떤다고 하면 개와 사람의 위처는 거꾸로 된 것이다.

《개와 사람은 들어 오지 말라》는 표말은 형식상 개와 사람을 같은 격에 놓고 한 말이지만은 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예민한 독자들은 미제의 정치적 개 노릇을 하고 있는 리 승만과 그의 일당을 련상하게 될 것이다.

비록 외모는 다르나 이 일당이 개 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려는 개는 양복 바지 저고리에 조선 두루마기를 입으며 조선말을 하나 미국을 자기의《조국》이라고 하는 개보다는 좀 더 순진하여 본성대로 네 발로 기여 컹컹 짖는 개를 말한다.

남조선 주둔 미 군사 고문단 단장으로 새로 임명 받은 하우스《소장》은 큰 수캐 한 마리를 데리고 미국을 떠났다.《한국 대통령》리 승만을 공기알처럼 다루는 리 승만의 양첩 애리스가 개를 사랑하며 특히 수캐를 사랑한다는《긴요한 정보》를 전임자들로부터 수소문 하여 알고 있는 하우스는 애리스를 낚아 채우기 위한 미끼로 이 개를《선물》로 가져 오는 길이다. 그러나 인색한 하우스는 쌘프랜씨스코에서 부산까지 개를 위하여 배'삯을 많이 낼 수는 없었다. 그는《장군》의 권세를 리용하여 례외로 보통 화물 료금 7 딸라 50 쎈트를 내고 신기는 하였으나 공기도 통하지 않는 컴컴한 창고에서 개는 요란스럽게 보채였다. 비록 네발 가진 개이기는 하나 두 발 가진 개 리 승만《대통령》을 조종할 수 있는 개가 아닌가!

한참 동안 눈알을 껌벅이던 하우스는 부관들을 선장실로 달려 보내여 탄 손님 명단을 가져다 훑었다. 그는 마침 2등 객실에 미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남조선으로 돌아가는 리 승만 괴뢰군 장교 2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 순간 2등 객실 입구에는《한국 주둔 미 군사 고문단 단장》의 명의로 리 승만 괴뢰군에 한하여《키—푸, 오—프》(조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들어 가지 못한다는 표식) 구역으로 선포한다는 표식이 나 붙었고 배멀미로 신음하다가 겨우 혼곤히 잠들었던 2명의 괴뢰군 장교들에게는 즉시 자리를 떠나라는《엄명》이 내렸다. 그들의 침대 머리에는 컴컴한 창고에서 끌려 나온 하우스의 개가 속히 자리를 비워 놓고 나가라는 듯이 서성대고 있었다.

개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태평양의 거센 해풍이 물방울과 함께 휘몰아 치는 갑판 우로 쫓겨 나온 2 명의 괴뢰군 장교는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다.《우리는 미국놈의 개 신세보다 못하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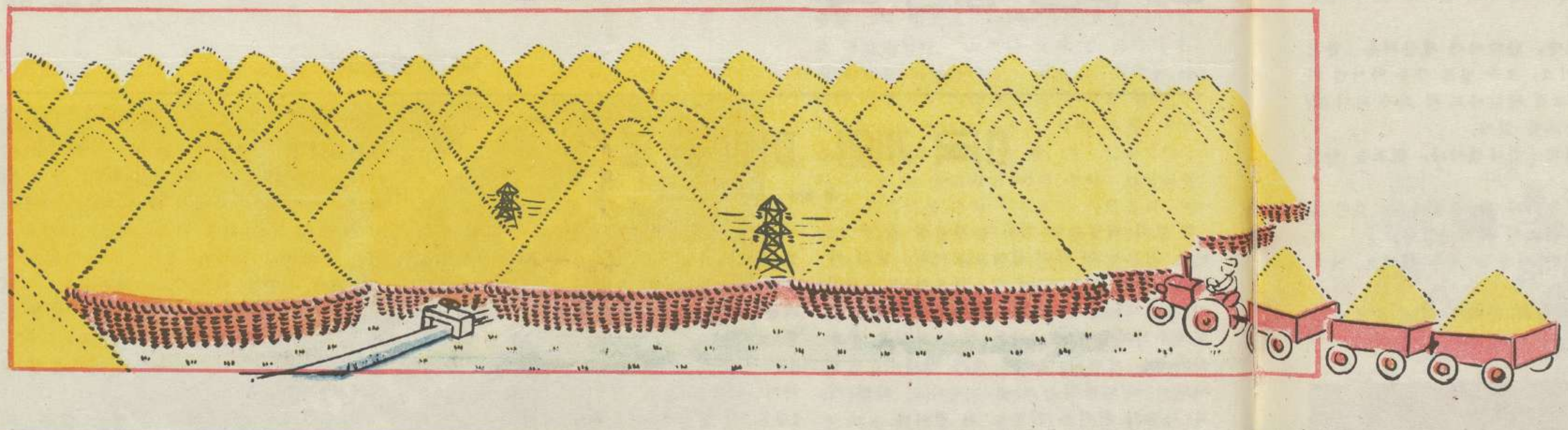
리 승만이란 개 밑에서 총'대를 잡는 괴뢰군의 신세가 뼈에 사무치도록 치욕스러움을 느꼈다.

자기들의《동맹군》이라고 떠드는 리 승만 괴뢰군의 장교를 이렇게 대접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민족적 계급적 멸시, 천대와 억압, 박해의 만행이 오죽하겠는가는 불문가지의 일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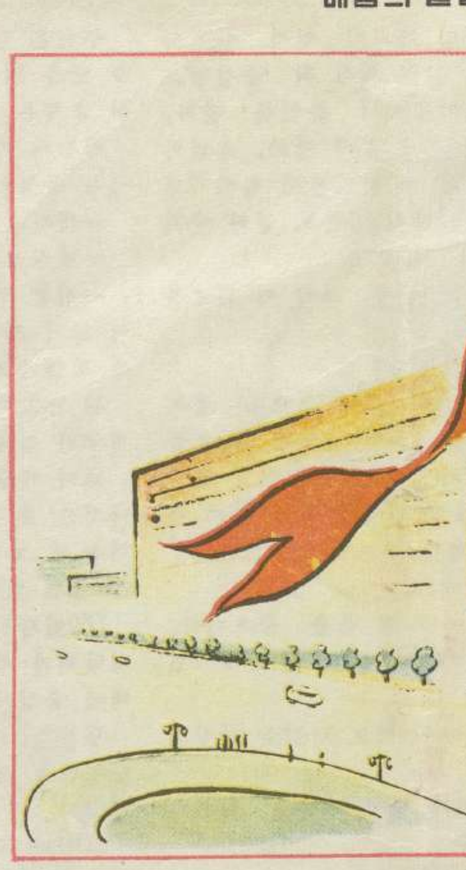
판이한 현실

행복의 씨를 뿌리는 사회주의 북반부

오곡이 산을 이룬 북반부 농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북반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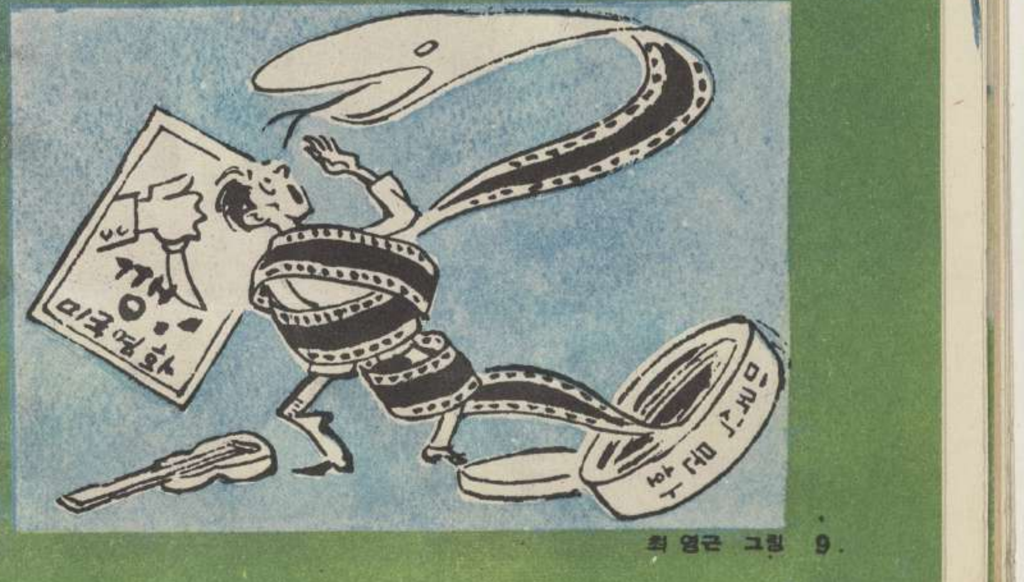
황금의 열매 맺는 북반부 예술

파탄 일로를 걷는 남반부 산업

략탈과 죽음만 달려 드는 남반부 농촌

빼앗기고 뺏는 남반부 학교

미국식 문화가 횡행하는 남반부



최 영근 그림

벌써 재판에 넘어 갔어요

박 내숙

서울 영등포구 료량진동에 사는 잡화상 주인 김 령보는 심사가 썩 고릅지 못하였다.

아침부터 가게를 지키고 있으나 매상고는 단돈 천환도 오르지 않았으니 어찌 심사가 편할 수 있겠는가!

—젠장, 이렇게 안팔린다구야.

령보 령감은 행길에 대고 침을 훽 뱉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젠 그만 들어 와요, 푸념해도 생기는건 없어요.

방안에서 마누라가 하는 말이다.

아직 통행 금지 시간 전이라 가게는 닫고 싶지 않았으나 담배'불이라도 붙여 볼 양으로 잡화상 주인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갔다.

그때 밖에서 누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크, 이제사 마수거리하는가부다)

령보 령감은 가슴이 출렁거렸다. 본전만 받으면 물건을 팔리라 생각했다. 불경기니 할 수 없지

—령감 안녕하슈.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은 등쳐 먹기로 이름난 파출소 순경 천가였다.

—나리, 어떻게 이렇게?

—이 집은 경기가 좋은 것 같군! 다른게 아니라…겨울이 다가 오는 데 박봉이라 별도리가 없구며, 돈은 이담에 낼게 그 놋화로를 외상으로 팔아요.

—놋화로라니? 며칠 전에 책상도 거져 가져 가시구…

—인제 다 줘, 걱정 말라니까.

—주신다구 말씀만 하시지 언제 한번도 주신적이 있어요? 같이 계신 최 순경님도 같아요. 도배를 해야겠으니 종이를 달라, 석탄이 떨어졌으니 돈을 꾸어 달라, 손님이 왔으니 점심 값을 좀 대 달라면서 벌써 7만환이나 가져갔는 데 아직 한푼도 돌려 주지 않거든요.

—알았소, 내 말해 주지, 그럼 이 화로를 가져 가네.

—아니, 나리! 여보슈!

령감은 막으려 했다.그러나 그때는 벌써 순경이 가게방에 내 놓았던 싯누런 화로를 집어 들고 거리로 나간 뒤였다. 령보 령감은 문을 걸고 맥 없이 방안에 들어 와서 재떨이에 담배'대만 땅땅 두드렸다.

—주인 문 좀 여슈,

그때 밖에 누가 와서 또 문을 두드린다. 나가 보니 아까 얘기되던 바로 최 순경이였다.

그는 들어 오자 마자 령보 령감을 붙잡고 고아대는 것이였다.

—주인! 우리 처가 방금 해산을 했는데 2만환만 좀 돌려 주

—아니 해산이라니? 여름에 해산하고 몇달 됐다고 또 해요? 그때도 돈을 가져 가시구.

—령감 그때는 해산이 아니고 딴 일이였어, 이번이 진짜야, 어서 2만환만 내요, 이담에 갚으면 되잖아.

—돈이 어더 있어야죠.

—이거 왜 이래, 령감이 아직 은덕을 모르는군, 장사는 누구 덕에 하는지 알구나 그러오.

—네네, 그걸 왜 모르겠소, 그저 하두 사정이 딱해서…장사를 해두 리 나는게 어디 있어야죠, 장리변 물고 나면 식구들의 호구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 소린 말아요, 오늘 은행에서 돈 찾아 온걸 알구 왔는 데…

주인은 할 수 없이 금고에서 천환 짜리 몇 장을 꺼내서 최가에게 내 주었다. 그제사 순경은 순순히 돌아 갔다.

령감이 가게를 닫으려고 하는데 옆집에 사는 동장이 들어 왔다.

—재판소에서 통지 안왔습디까?

—재판소?

—지불 명령이 내렸습디다. 낮에 볼 일이 있어 재판소에 들렸었는 데 령감이 소송에 걸렸다고 박 서기가 그럽디다.

김 령보의 컴오릭틱한 얼굴은 금시에 청개구리 잔등처럼 파랗게 질렸다.

고리 대금업자 김 첨지에게서 꾸어 쓴채 아직도 못 갚은 돈이 이럭저럭 근 50만환은 되는 데 그 암팡진 첨지가 드디어 소송을 건게 틀림 없다.

(50만환이 어디서 나나, 돈을 못 갚으면 집달리가 와서 차압을 하고 물건을 모두 경매에 붙일게 아닌가? 파산이다, 파산이야!)

령보는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방안으로 들어가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그러나 김 령보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이틀날 그는 파출소로 불려 갔다. 장부도 압수 당했다. 밀수품을 팔았다, 2중 장부를 만들어 놓고 탈세를 했다는 것이 경찰의 트집이였다.

—아니 여보슈,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하나나 있어요, 모두 일본 상품 아니면 미국 물건이지, 그것 팔았다고 왜 죄가 되나요?

순경들은 웃고만 있다.

그는 주임에게 한나절이나 취조를 받았다.

〈맘만 쓰면 후하게 봐 주겠다〉는 것이 결국 알고 보니 취조의 목적이였다.

—암만 그래야 이제는 소용 없어요.

—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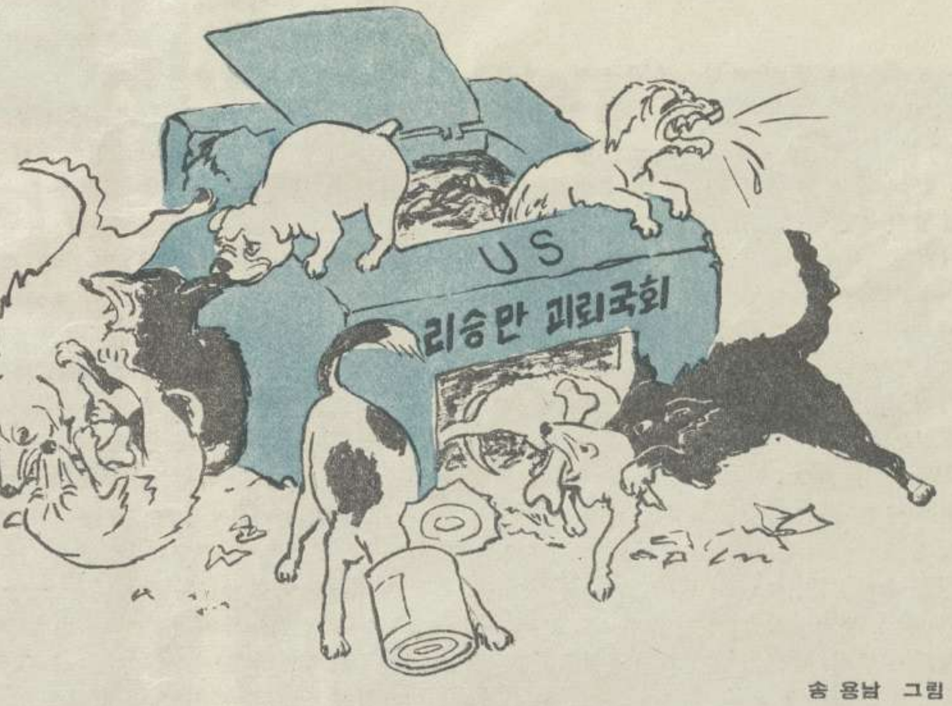
—우리 집은 벌써 재판에 넘어 갔어요.

홍 종호 그림

겨울을 앞두고

백 인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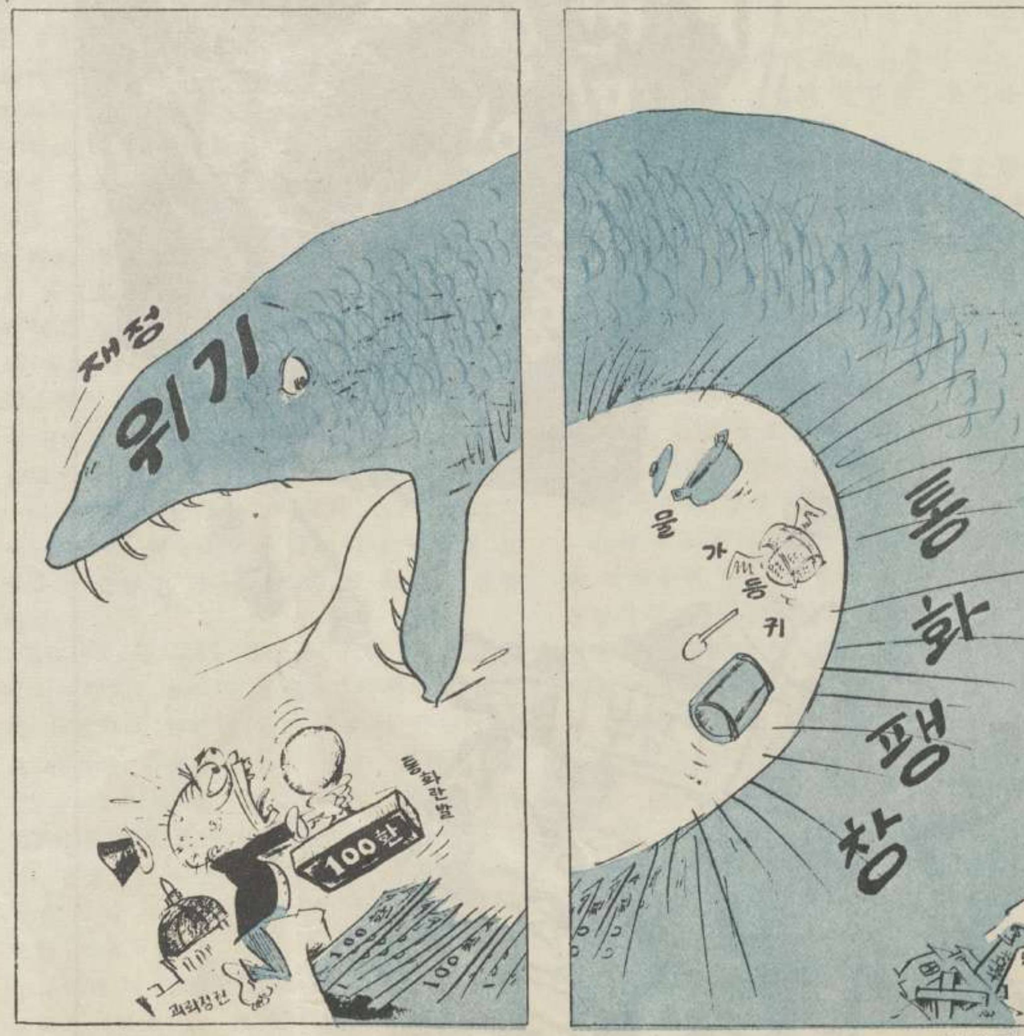
《국회》가 열렸다



송 용남 그림

자업자득.

현재 남조선의 통화량은 해방 직후에 비하여 230배 이상으로 팽창하였다. 그리하여 통화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물가는 한결 같이 폭등하여 악성 인프레 현상을 빚어 내고 있다



백 인규 그림

뒤 흔들린다

보건 사회부 장관이 송구스런 표정으로 《대통령 각하!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아이휴, 백성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렁하는구나, 그래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리재민 말입니다. 정부에 대한 원성이 강산을 울릴 지경입니다.》

《백성들이 그냥 우리를 원망한다구? 내가 이전 천재지변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안그랬느냐?!》

《그랬는 데도 각하!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건 하늘이 한 노릇이니 정부를 원망할게 아니라 하늘을 원망하라고 귀에 못이 배기도록 이야기했는 데도 〈치산 치수를 잘하고 집도 잘 지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게 아니냐? 만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살아 남은 사람들은 왜 구제하지 않느냐,우리에게서 긁어간 돈과 쌀은 다 뭘 하느냐〉고 대듭니다 그 백만이나 되는 리재민이…》

《아이휴, 하느님! 그 무지한 것들에게 벌을! 그들이 정부 처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 수 있다면…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량곡이 얼마나 필요한지두 모르구… 지금 있는 70만 명의 국방군 유지비와 경찰비만두 예산의 67%가 드는 데다 군사비, 경찰비 증가루 금년 예산도 9개월 동안에 168억 3천 8백만 환이나 적자를 낸 형편에 나라에 무슨 돈이 있어 구제하란 말이냐, 국가 수입 원천의 77%를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세금은 62% 밖에 안냈으니 뭘 가지구 구제하라느냐구 왜 말을 못하느냐, 구제금을 내라고 하는 것들에게는 세금을 다 물었느냐고 왜 못물어 보느냐, 보나마나 대부분이 세금들을 못다 문 것들일텐데 세금을 내야 그 돈으로 구제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달라고 못할게 아니냐》

《그런걸 다 이야기했습죠. 그런즉 〈그럼 왜 북조선에서 주겠다는 구제 물자는 안받느냐〉고 대듭니다》

《하느님 아버지시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러다가는… 빨리 그 리재민들을 진정시켜라 진정… 거액의 의연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로동자들까지 자꾸 들구 일어 납니다. 부산시 보수천 토공 공사에서는 4월부터 밀린 로임을 내라고 앉아 버티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납세를 거부해 일어나고, 도처에서 3만 6천 500명의 로동자들이 8 시간 로동제를 요구하여 나서고 9월 3일에는 부산〈기아산업주식회사〉에서또밀린임금을 내라고 들고 일어 났는데 로동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파업 건수가 1954년에는 4건이였는데 1957년에는 113건, 작년에는 200 건으로 늘어 가니 이젠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 미욱한 것들아, 문화 생활이란 달콤한 말이 있지 않느냐, 문교부 장관! 〈전국 문화 단체 총련합회〉를 내세워서 이 10월을 〈문화의 달〉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서 빈궁이란 인상을 덜게 하도록 해라.》

내무부 장관이 급히 뛰여 들어 왔다.

《대통령 각하! 로동자들이 또… 대한 석탄 공사 산하 로동자들 8천 여 명이 기아 임금을 5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 보고서를 보건 사회부에 제출 했습니다. 로동자들의 반정부 기세가 나날이 높아가 탄압할 도리가 없습니다》

《경찰을 대대적으로 불쿠구, 형무소, 재판소를 더 증축해서… 아니 재판은 해 뭘 해, 닥치는 대로 잡아 넣어라. 군사 경찰비가 예산의 67%라고 경찰 국가란 소문이 났지만 할 수 없다. 명년엔 81억환의 군사비를 더 불궈서…》

《경찰의 기동성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 대구의 경찰들이 오트바이와 최신식 장비로 무장했는 데도 도처에서 일어나니 미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동양, 조선, 대전 등 방직 회사에서 11 시간 로동을 반대해 일어 났습니다. 그런데 태창, 경성, 전남 등 3 개 방적 회사에서도 들고 일어나 끝내 우리가 못견디고 말았습니다.》

《이런 변이라구, 경찰은 밥 귀신이냐! 아이구, 미군만 없으면 하루도 못견디겠구나!》

국방부 장관이 들어 왔다.

《대통령 각하! 분부대로 반미 반정부적인 백성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한 대 《쌍룡》 상륙 작전과 원자 부대 훈련, 함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사병들의 기세가 좋으냐? 》

《황송하오나 사기가 전혀 없고 도주자와 탈영자, 자살자만 자꾸 늘어 갑니다.》

《그런 놈들은 모조리 가둬 넣어라, 모조리!》

리 승만은 미국에서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 올가하여 라지오를 틀었다.

《오늘 뉴욕 유엔 본부 앞 광장에서 남조선 출신의 청년이 〈남조선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시위를 단행하였다. 그는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리 승만을 규탄하였다…》

《아이구, 이게 무슨 망신이냐!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놓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누!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나를 받드는 놈은 얼마 없으니…》

리 승만은 몸서리를 치는 불안과 공포로 하여 학질에 걸린 사람처럼 떨기 시작하였다.

리 운봉

막을 수 없다

조 명식 그림

상승하는 사회주의

하강하는 제국주의

평북 일보사 허 성필 그림

진정복을 입혀야 한다

황 진 식

쏘미 량국 수뇌자 회담은 세계 인민들 앞에 평화와 국제 긴장 상태 완화에 대한 좋은 전망을 열어 놓았다. 세계 평화 애호 인민은 이 회담의 성과를 앞으로 계속 공고 확대할 것을 한결 같이 바라고 있다.

그런데 미국 지배층 가운데는 아직도 《랭전》의 얼음장을 깨뜨리는 것을 싫어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더욱 찬바람을 불어 보내려고 책동하는 자들이 있다.

10월 초순에 워싱톤에서 열린 《쎈토》(〈바그다드 조약〉의 후신) 회의와 그리고 현재 유엔에서 미국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는 소위 《티베트 문제》에 관한 소동은 그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책동을 통하여 《반공》 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랭전》을 격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이 《랭전》의 찬바람에는 썩은 냄새가 고약하게 풍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각하여 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쎈토》라는 미국의 침략적 군사 뿔럭은 작년에 이라크 혁명의 승리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바그다드 조약》의 사망 신고를 출생신고로 위조하여 등록한 유령 호적이요, 소위 《티베트 문제》라는 것은 금년 봄에 티베트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 당하고 지금 계급으로서의 시체로 화한 티베트의 반동적 상층부 즉 티베트 농노주들에 대한 장송곡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이 현대 노예 소유주들인 미제는 티베트의 농노제의 종말이 그다지도 서러워서 장송곡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백악관에 홀로 주저 앉아 통곡을 하기에는 너무나 외로워서 유엔의 거수 기계들의 삯울음에서나마 위안을 받고 싶어 소위 《티베트 문제》를 유엔에 상정케 하였다.

이것은 몇 해 동안 미국이 소위 《웽그리야 문제》를 떠들므로써 웽그리야 반혁명 도당들의 종말을 애통하여 온 그 행사의 연장이다.

《티베트 문제》에 관한 미국의 소동은 미국의 《힘》의 정책이 철저히 파산되고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의 불가 타승의 위력이 날로 세계에 시위되고 있는 오늘 맥빠진 《반공》을 다시 한 번 발악적으로 웨치며 《랭전》의 찬 바람을 한바탕 일으켜 보려는 것이다. 실로 이 소동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내정에 대한 혹독한 간섭이며 유엔의 임무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미제가 장개석이나 입레나지 도당, 그리고 《바그다드 조약》이나 티베트 농노주들이 들어가 있는 시체실의 썩은 냄새로 혼탁된 랭기를 제아무리 떨쳐 뿌리기에 발악하여도 이자들의 죽은 넋이 다시 살아 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에 차고 넘쳐 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평화의 공기를 오독시켜 낼 수는 없다.

미국의 반동 계층과 호전적 장군들이 제아무리 책동하여도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승승 장구하고 있으며 제국주의는 급전 직하로 시궁창에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 력사적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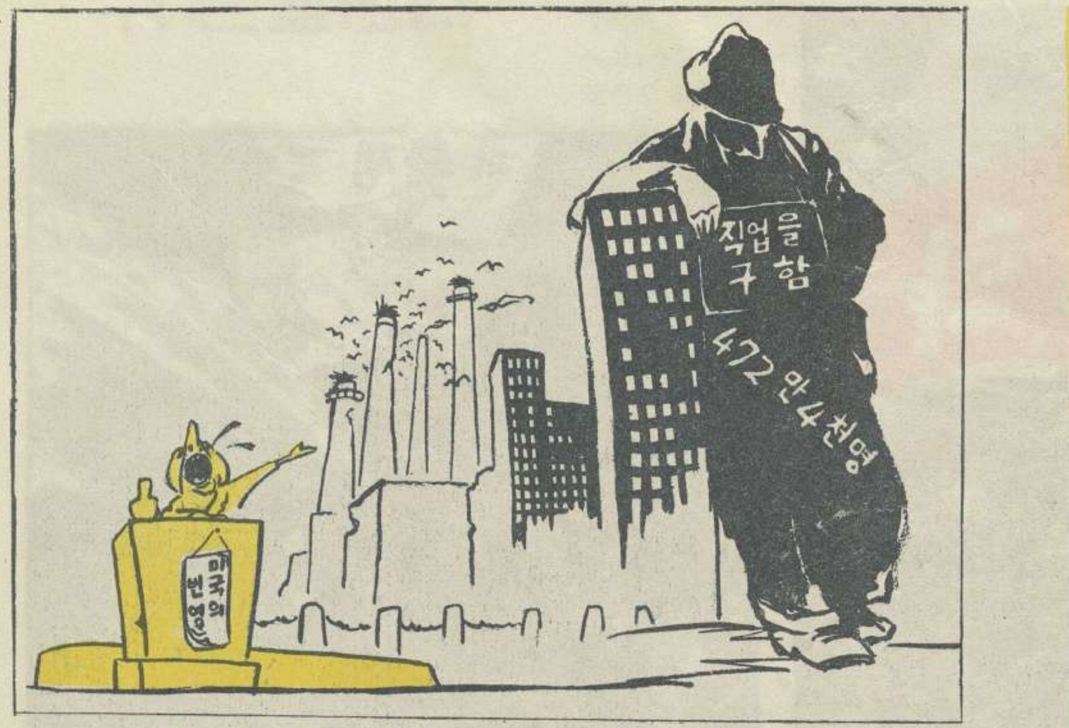
미제가 중화 인민 공화국을 그렇게 악의에 차서 비방 중상하고 파괴 활동을 감행하였으나 10년 동안에 중국은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장성 강화되였다.

오늘 미제가 《티베트 문제》에 관한 소동을 제아무리 일으켜 보아야 이 사태 발전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랭전〉을 열전으로 전변시키려 하면서 〈랭전〉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자들은 오늘날 전쟁을 개시할수있는 자는 미치광이 뿐이며 그러한 자는 그 전쟁의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엔•에쓰•흐루쑈브)

세계 평화를 위하여 국제 관계에 더욱 맑은 공기를 가져 오기 위하여 〈랭전〉의 정신병자들에게 진정복을 입혀야 한다

쏘미 량국 수뇌자 회담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하여야 한다.

미국의 《번영》



—보다 싶이 미국에선 공장도 로동자도 넉넉하게 남아 돌지요.

미국에서는 집도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가 하면 개에게 수십만 딸라의 유산을 물려 주며 훌륭한 려관과 목욕탕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송 용남 그림

미국의 《첫째》 문제

조 인석

문자 그대로 황마의 독아마냥 마천루들이 삐쭉삐쭉 솟아 있는 거리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미국의 전 상무 장관 스트라우스가 걸어 가고 있다. 《뒤를 돌아 보지 마십시요, 누가 우리 뒤를 밟는 것 같습니다》라고 스트라우스가 주둥아리를 대통령의 귀밑에 갖다 대고 속삭인다.

그러나 대통령은 마음이 안 놓이는지 힐끔힐끔 뒤를 돌아다 본다. 과연 그들의 등뒤로는 덧저고리 호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찌른 등이 꾸부정한 거인—로동자가 어슬렁어슬렁 따라 오고 있다. 덧저고리에는 《472만 4천 명의 실업자》라는 굵직한 글이 써여 있다.

《대통령 각하, 실업도 자유지요, 우리는 실업을 금지하지 않으니까요》

스트라우스는 대통령을 위안하느라고 계속 중얼거린다. 그가 입은 화려한 스프링코트는 피가 묻은 〈번영〉이라는 글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금년 초에 미국 신문 《워싱톤 포스트 앤드 타임스 헤랄드》지에 게재된 유명한 만화가 허블리크의 그림이다.

미국 지배층이 별재간을 다 피우며 《아메리카의 번영》에 대하여 떠들어 대지만 수백만 근로 대중을 령락과 기아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는 실업은 감소되기는 커녕 더욱 늘어만 갔다.

당시 미국의 합동 로조 에이 에프 엘—씨 아이 오 위원장 조지 미니도 《실업은 미국의 남버 원(첫째 문제)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자인하였다.

이처럼 날카롭게 제기되는 대중적인 만성적 실업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미국 지배층을 풍자한 허블리크의 그림은 매우 인상적이였다.

그때로부터 몇 달이 흘러 갔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첫째 문제》는 그동안 어떻게 해결되였는가? 물론 미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 났다.

아이젠하워의 곁에 붙어 다니던 상무 장관 스트라우스는 자기 직책에서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빈궁, 기아에 참지 못해 수백만 미국 로동자들이 대중적 파업으로 넘어간 사실이다.

7월 15일에 개시된 50만 명의 강철 로동자들의 파업은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10월 1일에는 대서양 및 멕시코만 연안의 부두 로동자 8만 5천 명이 파업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허블리크가 자기 만화의 주인공들의 그후 운명을 그려 준다면 어떤 만화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등이 꾸부정한 거인—로동자는 머리를 버쩍 쳐들고 아이젠하워의 앞'길을 막아서며 씩씩하게 웨친다.

《해고를 반대한다》, 《임금을 올리라》, 《랭전을 걷어 치우라》고.

오도 가도 못하고 당황한 아이젠하워의 곁에는 스트라우스 대신 에이 에프 엘—씨 아이 오 부위원장 루터가 나타나서 무엇인가 중얼댄다.

《대통령 각하, 로동자들의 파업은 코'날이 세지만 문제의 해결은 당신의 결단성 있는 결심 여하에 달려 있지요. 우리 미국 로조는 미국의 운명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당신의 결단성 있는 행동에 언제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과연 아이젠하워는 《훌륭한 결심》을 채택하고 파업 로동자들에게 《깊은 배려》를 돌렸다. 그는 타프트 하틀리법의 발동을 명령한 것이다. 타프트 하틀리 법이란 로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며 파업을 중지하지 않는 로동자들을 처단할 것이 규정되여 있는 파쑈적 악법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파쑈적 악법의 적용에 대해서도 로동자들의 《리익을 대표》한다는 루터에게 있어서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실업도 파업도 파업에 대한 탄압도 우리 나라에서는 자유이다》라고.

허블리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귀뜸해 두자. 그 인상적인 그림에서 단하나 유감이라면 유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배경으로 미국 《자유》의 녀신 동상이 들어 가지 않은 것이니 이번에는 꼭 빠쳐 놓지 않기를…

첫 촬 영

허 능택 그림

로켓트—뒤'모습도 곱군요

달—난생 처음인데 좀 잘 찍어 주세요

조 명식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877
발행 1959. 11. 11
(값40전)

위대한 힘!

송 용남 그림